

제7차 IEC/CB(총회상임위원회)회의 주요내용

여기에 실은 내용은 2000년 2월 23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7차 IEC CB(총회상임위원회)회의에 ISO 주재관이며 IEC CB위원인 김현일 과장이 참석하고 보내온 참석 결과 보고서중 주요내용을 발췌하여 정리한 것입니다. 최근 IEC동향을 전기·전자 관련 업계 여러분에게 알림으로써 국제표준화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동 보고서 내용을 공개하며, 앞으로도 추가 자료가 있을 시 수시로 공개할 계획입니다.

이번 호부터 2회에 걸쳐 게재하오니 많은 도움이 되기를 희망하며 내용과 관련하여 추가로 알고 싶은 내용이 있거나 질의가 있을 경우 기술표준원 전자정보표준과로 직접 질의하시기 바랍니다.(연락처 • E-mail : lee532@ats.go.kr • 전화 : 509-7403~4 • 담당 : 이승욱 사무관)

- 편집자주 -

주요 논의 사항

(1) [Global Relevance of IEC Standards] 작업반 업무규정 검토

○ 작업반의 주요 업무

- 왜 일부 IEC 표준들이 국가표준으로 채택되기에 적합치 않은지에 대한 사유 파악
- IEC 표준의 범 세계적 이용 확대방안 건의
- 서로 다른 표준으로 인해 야기되는 세계전기기술시장의 분열을 극복하기 위하여 IEC가 해야 할 역할 제안

○ 작업반 멤버 : IEC 회장이 지명

(2) IEC 회장의 집행위원회(Exco) 회의내용 보고

○ 9월 스톡홀름 총회시 [TC/SC 담당자 워크숍] 개최 예정

- 목적 : IEC 핵심 전략사항에 대한 TC/SC 담당자의 의견 수렴
- IEC 회장은 관련 TC/SC 담당자들이 워크숍에 적극 참석토록 각 국가위원회에서 권유할 것을 요청

- IEC 회원
 - 몰타(Malta)와 튀니지아(Tunisia)가 준회원 가입 신청
 - 이란(Iran)은 정회원 가입 의사 표명
- IEC Family 확대
 - 집행위원회는 IEC 회원확대를 우선추진업무로 인식, 이를 위해 집행위원회 내에 [메커니즘에 관한 제안서 작성 작업반]을 구성기로 결정
- ISO/IEC Guide 2(용어) 개정 추진
 - WTO/TBT에 [국제표준화기구] 및 [국제표준]에 관한 정의가 명확히 되어 있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으므로, TBT 협정문에서 인용하고 있는 ISO/IEC Guide 2(용어)를 개정하여 이들 용어를 명확히 정의하기로 함
- ISO [SGM 포럼] 지지
 - 집행위원회는 최근 ISO가 발의한 [SGM(Standards for the Global Market) Forum]을 지지
- 총회(General Meetings) 개최 기간
 - 현재 2주간에 걸쳐 개최되는 총회기간을 2001년부터는 1주간으로 단축
- ITA(산업기술협정) 이행
 - ITA 개념을 업계에 널리 홍보토록 중앙사무국에 요청

(3) IEC 마스터플랜 2000(안) 검토

- [마스터플랜 작성 작업반]에서 작성한 [IEC 마스터플랜 2000(안)]에 대한 멤버들의 의견 수렴
- 마스터플랜에 대한 PACT(미래기술에 관한 회장자문위원회)의 건의를 수용
 - PACT는 다음과 같이 IEC 표준화 작업을 둘로 나누어 추진할 것을 제안
 - 1) Standards Group 1 : 수평적 성격의 표준 (안전, 보건, EMC, EMF 등) - 국가위원회 (NC)가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며, 업계는 NC를 통하여 참여. NC 투표 실시. 제정된 표준에 대해 IEC가 관권 보유
 - 2) Standards Group 2 : 제품기술, 상호연결 및 상호운용성에 관련된 표준 - 업계가 주도적 역할을 하며, (NC를 통하지 않고) 업계가 직접 국제표준화 활동에 참여. NC 투표 미실시. IEC가 제정된 표준에 대한 관권을 보유하지 않음
- 금번 회의시 거론된 사항을 토대로 [마스터플랜 작업반]이 수정안을 작성, 5월 CB회의 이전에 멤버들에게 회람기로 함

(4) IEC 이사회(CA)의 보고

- 2000. 2. 10-11 호주 시드니에서 개최된 제107회 이사회 결과보고 청취
- IEC/판매정책위원회(SPC)로 하여금 EIA(전자공업협회)에서 출판한 2종의 EDIF표준에 대한 판권이용을 연구토록 하자는 이사회(CA)의 요청을 승인

(5) 아시아태평양 IEC 촉진활동에 관한 보고

- Mr. Togeï(일본, IEC부회장)가 99. 10. 30 일본 오끼나와에서 개최된 제2차 APSG(Asia-Pacific Steering Group) 회의결과를 보고
 - 회의 참석국 : 한국, 일본 등 10개국
 - IEC 회원 신규가입 가능성이 있는 브루나이, 베트남 대표를 차기 회의시 손님으로 초대 예정
 - IEC 웹사이트에 APSG 홈페이지 개설
 - APSG 임무와 업무 결정
 - 임무 :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표준화 및 적합성평가에 관한 IEC 비전, 임무 및 목표 완수를 촉진
 - 업무 : APEC/SCSC, PASC, ASEAN 표준화그룹과의 관계정립

(6) 총회 관련사항

- 현 부회장들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금년도 스톡홀름 총회에서는 부회장(CA 의장 및 CAB 의장) 선출이 있을 예정
- 2000. 4월부터 후보추천 접수, 6월에 후보 발표
- 총회가 끝난후 개최될 [Open Session]의 주제를 “The Importance of International Standards to the Marketplace”로 결정

(7) 판매정책위원회(SPC)의 보고

- 판매정책위원회(SPC)의 보고 청취 후 다음과 같이 결정
 - IEV(국제전기표준용어집)중 일반 개념, 용어정의를 다루는 부분을 웹에 올려 제한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SPC의 건의를 승인
 - IEC, IEV 및 다국어 사전(CD-ROM)에 대한 인식과 판매를 촉진시키기 위해 IEV에 있는 모든 용어가 포함된 완전한 색인표(영어, 불어, 독어)도 웹에 올려 무료로 이용토록 하자는 SPC의 건의를 승인

- 오직 국가위원회(NC)가 국가표준으로 채택하려는 목적에 한하여 수정가능한 형태의 파일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현재의 정책을 계속 실행토록 승인

건의 사항

(1) 국제표준화기구의 ITA(산업기술협정) 활성화에 따른 대비책 마련

- 상기 [주요 논의사항]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IEC 마스터플랜 2000(안)] 검토시 PACT (미래기술에 관한 회장자문위원회)는 “국제표준화작업을 둘로 나누어, IEC 멤버인 국가위원회(NC)는 안전·보건·환경·EMC, EMF 등 수평적 표준 (제품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표준)만을 담당하고, 제품기술·상호접속·상호운용 등 개별제품에 관한 사항은 업계에 맡긴다”는 안을 마스터플랜에 추가할 것을 요구하였고, 선진국 멤버들의 적극적인 찬성 의사 표명으로 동 제안은 수용됨.

※ PACT 멤버는 국가위원회에서 추천한 전문가중에서 IEC 회장이 임명하며, 현재 멤버는 총 14명으로 대부분 선진국 업계의 중역들임

· 멤버 구성현황 : IEC 3명(회장, 전임회장, 사무총장), 미국 2명, 일본 2명, 독일 1명, 핀란드 1명, 프랑스 1명, 네덜란드 1명, 이태리 1명, 중국 1명, 영국 1명 등

- PACT의 주장은, 업계주도의 [컨소시엄]을 통하여 제품기술·상호접속·상호운용 등 개별제품에 대한 표준화를 추진함으로써, 1)급속한 기술변화 및 시장압력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고, 2)기술이 복잡해질수록 증가하는 지적 재산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3)그러한 표준은 국가표준화기관이 아닌 업계에 의해 주도되어야 한다고 주장.

- 그러나 PACT 멤버가 주로 선진국 업체들이고, Siemens처럼 자사의 제품시장을 국제표준이 되도록 함으로써 막대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업체들임을 감안할 때, PACT의 주장 이면에는 “기술이 있는 선진국 업체들끼리 자기들 입에 맞게 표준화를 추진하겠으니 국가표준화기관들과 실력없는 업체들은 개별제품 표준화에서 손을 떼라. 또는 선진국 업체들의 시장독점을 국가표준화기관들이 방해하거나 차단하지 말라”는 의도가 깔려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현재 국제무역 상품의 50% 이상이 전기전자(정보통신 포함)기술과 관련된 제품이고, 이들 제품의 상업적 가치는 안전·보건·환경 등 일반적인 사항보다, 광학적 저장방식·디지털 방송 및 통신방식·산업자동화 버스(bus)의 신호전달방식 등 상호연결·상호운용·호환성에 관련된 개별 제품의 시방에 좌우

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들이 추구하는 숨은 뜻이 더 확실해 짐

- PACT는 “업계가 주도하는 분야의 표준화는 ITA · PAS · TS 등으로 제정될 것이고, 이들은 [표준(standards)]이 아닌 [기준문서(deliverables)]”라며 국가위원회들(NCs)이 느끼는 충격을 완화시키려 하고 있으나, 현재 [마스터플랜 2000(안)]에는 [standards]로 명시토록 건의하고 있음.
 - “ITA · PAS · TS는 표준(standards)의 지위를 갖지 않는다”라는 정의는 IEC 총회를 통해서 이미 정해진 것이지만, ITA로 제정된다 해도 국제표준화 및 국가표준화에 미치는 영향력은 매우 큼.
 - 현재 IEC 표준으로 제정된 [다국어문자코드] 표준화 과정에서 [유니코드컨소시엄]이 IEC 표준화 및 우리나라 한글코드표준화에 준 큰 영향력은 그 좋은 예임
- 그러나 선진국들이 지지하는 이상, 국제표준화를 [수평적 표준]과 [제품 표준]으로 이원화시키려는 흐름을 막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시작단계인 현 시점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은, 향후 발표될 IEC의 구체적 추진계획 수립과정을 예의 주시하여 적절히 대응하고, 가급적 빠른 시간내에 이러한 흐름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됨. 그 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음
 - 1) 업계에 상황 전파 및 표준화에 대한 관심 제고
 - 전기전자산업 및 정보산업 관련업체들을 대상으로, 앞으로는 제품분야의 표준화는 국가표준화 기관이 아닌 업계가 스스로 참여해야 하며,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국제표준화 세계에 직접 뛰어들어 경쟁해야 한다는 점을 인식시켜야 함
 - 관련된 [컨소시엄] 구성 초기부터 가입해야 함. 컨소시엄은 공정성을 내세워 생산자 · 사용자 · 시험기관의 참여비율을 정해 추가 가입을 제한할 수도 있으며, 컨소시엄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참여업체를 일방적으로 제한할 수도 있음
 - [컨소시엄]에 직접 참여해야 해당 프로젝트와 관련된 [특허]를 무료로 사용하거나, 유리한 조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협상 가능
 - 2) 기술표준원과 업체간 협력체제 구축

2) 기술표준원과 업체간 협력체제 구축

형식적으로 볼 때, [컨소시엄]참여는 업계가 스스로 참여하는 것이며, 국가표준화기관이 개입할

여지는 없음. 그러나 국가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기술표준원과 업계의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져야 함

- [컨소시엄]에 관한 정보 수집 · 관리체제 구축
 - ITA 추진은 [컨소시엄]을 미리 구성한 후 IEC와 협의하는 경우도 있고, IEC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구성하는 경우도 있으며, 컨소시엄 멤버 구성도 공개적으로 하는 경우와 비공개로 하는 경우가 있음. 따라서 기술표준원에서 입수한 정보는 물론 업계에서 개별적으로 입수한 정보도 한 곳에 모아 관리 및 활용하는 체제가 구축되어야 함
- [컨소시엄]에 대응하기 위한 국내의 합의도출 및 추진방향(national position) 설정 절차 마련
- [컨소시엄] 참여업체 선정 및 지원 절차 마련
 - 동일한 [컨소시엄]에 국내 관련업체가 모두 참여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국가적으로 볼 때는 중요한 것으로 판단되지만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가 전혀 없을 경우도 있음.
- [컨소시엄] 참여 지원자금 마련
 - [컨소시엄]은 형식상 업체들의 모임이므로, 컨소시엄 참여를 목적으로 국가예산을 지원하기 곤란할 것임. 따라서 컨소시엄 참여를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특별한 자금마련이 필요할 것임. (예: 관민합동으로 조성한 표준화기금 등)

3) 국가 이익에 반하는 행위에 대한 통제 장치 마련

- [컨소시엄]에는 업계가 자신만의 이익을 위해 참여하여, 국가 전체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할 수도 있으므로 국가 내부적으로 조정 또는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임

(2) [가중투표제도]에 대비하여 IEC TC/SC 참여 확대

- [IEC 마스터플랜 2000(안)]에는 “투표시스템 개정”이 포함되어 있는 바, 그동안 거론되어온 상황을 감안할 때, 지금까지 유지해온 [1개국 1표]를 개정하여 기술업무에 관한 사항(국제표준 제정 등 TC/SC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가중투표제도(weighted voting system)]제도를 도입할 것으로 보이며, [투표권 가중치]는 국가별 분담금 규모, TC/SC 활동 참여도(간사직 수행, 표준안 제안, 회의참여 등)를 반영하게 될 것으로 예상됨.
- [가중투표]에 대해서는 유럽지역, 특히 프랑스에서 지속적으로 주장